



# 濁流清論

제1호 2009년 6월 1일(월)

발행인 : 이일영 / 편집 : 홍보위원회

## < 알려드립니다 >

### ◇ 제19차 교수회 대의원회

- 일시 : 6월 3일(수) 12시
- 장소 : 울곡관 제1회의실

### ◇ 6월 3일부터 현수막 시위 시작

매일(월요일-금요일) 12시부터 1시간 씩 두 분의 교수께서 울곡관 정문에서 현수막을 들고 우리의 주장을 재단과 학교 측에 알리는 시위를 시작합니다.

단, 첫날 6월 3일만은 교수회 대의원회 이후 1시부터 행사를 가집니다. 교수님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현수막 시위에 동참을 원하시는 회원 교수님들께서는 교수회 사무실(구내 2240)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수회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과 대자보가 게시되었습니다. 현수막은 학교 정문 진입로 중간 부분에, 대자보는 교내 대형 게시판에 설치, 부착되었습니다.

## < 목 차 >

발간에 즈음하여	1
무엇이 문제인가?	1
어떤 일화(逸話)에 기대어 반주(反芻)해 본	4
오만(傲慢), 무력(無力), 그리고 뻔뻔(沒廉恥)함	6

## 발간에 즈음하여

교수회 홍보위원회

대학 사회와 교수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다양성이 허용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의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심지어는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이 우리 아주대학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대 간의 다름, 학문 분야 간의 다름, 정치적 성향의 다름 등 많은 ‘다름’ 가운데 단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이 다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깊은 고민과 소통을 거치면서 큰 안목에서 통합될 수 있음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탁류청론”은 비록 현 학내 상황으로 인하여 일단 교수회 소식지로 출발하지만, 아주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우리는 깨끗하다는 의미에서 “탁류청론(濁流淸論)”을 제호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휘몰아가는 시대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금은 격(格)이 다른 근본적인 고민을 나누어 보자는 뜻을 그 이름에 담았다고 강변해 봅니다.

“탁류청론”은 한 동안 격주간으로 발간됩니다. 현안이 해결된 이후에는 적절한 발간 형식을 다시 정할까 합니다. 이번 창간호에는 학내 현안에 대한 Q&A와, 이번 일로 인해 사직한 두 전 학장님들의 글을 실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모두 생각해볼 만한 화두를 던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교수회 홍보위원회

박종구 전 차관의 교수특별 임용 및 교무부총장 임명 건은 시작부터 이사회 통과까지 일련의 과정이 대학사회의 상식을 무시하고 이루어졌으며, 아주대학이 지켜온 전통은 물론 규정까지도 심각하게 무시 하였습니다. 교수회에서는 그간 조사위원회 활동 보고와 몇몇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일에 대한 경과 및 교수회의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교수님들께서 논점을 파악하시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소식지에서는 그간의 문건과 그 외 밝혀진 사실들에 근거하여 현안과 관련된 여러 논점에 대한 교수회 대의원회의 판단 근거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은 근본적으로 대학의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대학의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특채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고려할 수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들이 하듯이 전직 관료에게 대외협상 업무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안이라는 주장도 일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접촉을 주 업무로 하는 로비스트를 정년이 보장되는 교

수로 임명하는 것은 대학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전직 관료의 특채가 대학의 교수 임용과 평가·승진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과 같은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대학의 예에서 보듯이 전직 관료들을 뽑아 대외접촉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과거 정교수 직을 수행하다 사직한 바 있으므로 정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박 전 차관이 한 때 아주대학 경제학과에 정교수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정교수 특별임용을 정당화하고자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들이 ‘칠밥통’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동료 간에 혹은 선배와 후배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정도로 연구 및 교육에 대한 기준을 높여온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1년간이나 대학을 떠나 공무원으로 일하신 분에게 11년 전의 경력을 근거로 정년보장 교수직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박 차관은 관료로 유능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료로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그 만큼 본인의 전공인 재정학 분야의 연구와 공부는 멀리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지난 11년간 단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또한, 박 전 차관의 특별임용 가능성을 총장이 물어 왔을 때 경제학전공 교수들이 총장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재정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장께서는 경제학전공 교수들의 판단을 전달받았

을 때, 박 전 차관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로 특채하는 일을 포기하셨어야 합니다. 보직자들도 동료교수들의 판단 근거를 살펴 총장에게 올바른 조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장과 보직자들은 오히려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대학원에너지전공의 순서로 박 전 차관의 특별임용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교수라 하면 각자 분명한 교육과 연구 분야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데, 이처럼 학문적 성격이 다른 대학원 과정들에 특별임용 가능성을 물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장과 보직자들도 박 전 차관을 대외 접촉을 담당할 특수기능직 정도로 생각했기에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시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년까지도 보장되는 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총장과 보직자들의 행보는 대학운명을 ‘기능적’ 으로만 접근했지, 대학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이는 공공정책대학원과 대학원에너지전공의 교수들이, 원칙에 어긋나는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경력과 교육대학원 교수 임용과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박 전 차관의 관료로서의 경력을 높이 산다 하더라도, 그의 업무는 과학기술 관련이었습니다. 교과부 제2차관의 자리 역시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에 의한 산물로 교육 분야가 아닌 과학기술 관련 업무가 주 업무였습니다. 따라서 박 전 차관을 교육대학원 교수로 임용제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학 전공 전직 관료가 보직임기가 끝난 다음

에도 10여 년을 교육대학원 교수로 교육행정/대학행정 분야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정학 전공 전직 관료를 교육대학원 교수로 임용제청할 수 있었습니까?

**임용 과정에 있어 하자가 있으며, 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근거는 무엇인가?**

교육대학원장은 교수 특별임용 절차를 진행시킴에 있어 규정을 무시하였고 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교원신규임용규칙」의 규정들은 무시되었으며, 제20조의 특별채용 조항만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지원자의 지원서도 없는 정도이니 구비서류가 부실하다는 것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전공심사를 위한 지원자의 연구실적물 심사 자료가 준비된 바도 없습니다. 면접심사는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심사를 신입교원심사위원회의 결정이니 유효하

다고 주장한다면 이도 궤변입니다. 임용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대학원 교수회의는 단 두 번 있었고, 그나마 두 번째 회의에서 박 전 차관의 특별채용을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신입교원심사위원회가 모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정상적인 교수임용 심사의 경우와 달리 어떤 부분의 심사를 생략할 것인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총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교원신규임용규칙」 제13조도 지키지 않고

구성된 신입교원심사위원회는 그나마 단 한 차례의 회의를 교외심사 위원 중 한 사람의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아주대학의 교수 임용 심사가 이렇게 진행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임용심사가 마치 무슨 출장서비스처럼 이루어진 것은 정해진 이사회 날짜에 맞추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짜를 정해 놓고, 그 안에 형식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 교육대학원 교수회의가 열린 날부터 단 3일 만에 교수임용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공교수회의 2회 중 1회만 회의록이 교육대학원장에 의해 직접 작성되어 두 회의의 내용이 한 회의에서 논의한 것처럼 되는 등, 회의록 날짜와 참석자 명단에도 오류가 있었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로 회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유로 회의록 전자결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무처장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입교원심사위원회가 총장의 위촉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사후 보고 및 승인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절차의 중요성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구비서류를 받고 심사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교무처의 업무인데,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시킨 것이나 연구업적 심사나 면접심사가 완전히 생략된 것을 눈 감은 것을 볼 때 교무처장도 교육대학원장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전에 일을 마무리 하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임용에 관한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부서를 맡은 교무위원이 엄정한 교원임용 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아주대학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이번 심사의 진행을 묵과하고 방조했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사태입니다. 교무처장이 「교원신규임용규칙」

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총장의 권한위임에 대한 분명한 근거기록도 없이 자의적으로 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준을 변경한 심사를 중용 또는 수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교무위원이라면 마땅히, 아주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총장이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보좌해야 하며, 총장이 대학의 장래에 누가 될 결정을 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언할 용기와 이에 필요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박 전 차관의 교수 특별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장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무겁습니다. 최초의 특별임용 요청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경제전공 교수들이 의견을 모았을 때 이를 수용했어야 합니다. 이를 추진하려는 의사를 접지 않자 보니, 마치 무슨 장바닥의 흥정처럼, 여러 전공에 특별채용의사를 타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재정학 전공 전 판교를 교육대학원 교수로 임용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참모진이 가져오면 이를 꾸짖어야 할 총장이, 그도 방법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으니 일이 이 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총장이 교수특별 임용심사에 반영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교원신규임용규칙」 중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명확히 결정하거나 권한을 위임하면 될 것을, 필요한 절차는 무시하고 박 전 차관의 교수 특별임용이라는 목표만 밀어 붙이다 보니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아주대학이 자랑스럽게 지켜온 깨끗하고 엄정한 교수임용이라는 전통이 위협받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 더해서 이 일에 대한 항의사적으로 공석이 된 기초교육대학장 자리에 교육대학원장을 겸직 발령하는 ‘역주행’에 대해서는, 어안이 병병해질 따름입니다.

## 이 일에 있어 재단 이사장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사장은 대외협력부총장 직을 신설하고자 한 총장의 원안을 무시하고 교무부총장 자리를 신설하였고, 부총장직을 신설하는 정관개정이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박 전 차관의 교수 임용을 결정하였으며, 적절한 절차에 따른 총장의 보직임명 제정도 없이 박 전 차관의 교무부총장 임명을 강행하였는데 이는 대학의 장래를 걱정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교무부총장 안은 학교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준비되었으며, 이사회 석상에서 총장은 이안에 대해 1시간여에 걸친 토론 과정 중 줄곧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며 결국 표결 시에도 이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관개정, 박 전 차관의 교수 특별임용, 교무부총장 발령이 모두 한 번에 이루어진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상식적으로 지켜져야 할 절차들이 생략되거나 왜곡되었고, 따라서 위인설관 식의 억지 짜맞추기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사장의 책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사장이라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는 식의 강압적 발언을 하면서 박 전 차관의 교무부총장 임명을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교수회는 여러 차례 성명서 또는 공문을 통해 이사장의 사과와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묵묵부답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교수회가 학교와 재단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상한 형국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대학을 농단하는 이사장의 행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기 위한 교수들의 자발적 준비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다 막판에 재단 설립자가 의중을 드러내자 서두르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대학의 공간문제는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급기야 대학본부가 교외의 건물로 이전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병원을 비롯해 이권이 있는 곳에는 관심이 많다는 소문이 대학사회에 퍼다합니다. 더구나 이사장의 승인 없이는 직원 1명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행정 팀 하나도 신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장과 처장 임명에도 직접 개입하여 총장 의지대로 학장을 임명하거나 처장을 임명하는 일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물론,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이사장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인사권 중 상당 부분을 총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도 전임 이사장 재임기간에는 총장이 인사권을 위임 받아 행사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사장의 개입은 인사에 국한된 것만이 아닙니다. 재정 규모가 큰 사업에는 항상 개입하여 업무 진행을 막아왔습니다. 전술한 법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종합관 신축, 새 민자

기숙사 건립, 고시반 건물 신축 등 주요 사업이 중단, 지연되거나 표류하고 있는 것 등은 모두 이사장의 의사결정 지연 또는 반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이렇게 대학발전을 외면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 전 차관의 교무부총장 임명은 차기 총장후보 선임을 수순 밟기이며 대학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된 기획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억측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부족한 점에 대해 성찰하고 인정하며, 그 바탕 위에서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박종구 전 차관에게 개인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임용 및 임명 과정에 있어 박 전 차관의 잘못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총장이 교수임용절차를 여기면서 대학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에 정교수 직을 제의하였습니다. 총장이 반대했음에도 재단은 정관개정을 통해 교무부총장직을 신설하는 동시에 부총장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본인은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대학과 재단이 이러한 무리수를 두었다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본인과 재단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소문이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교수임용 제도에서만은 공정한 규칙을 지켜왔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여러 교수들은 박 전 차관 본인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대학의 근본들이 와해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대학은 퇴행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임용 과정에서는 본인의 행동 선택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학교의 잘못이건 재단의 잘못이건, 자신의 임용과 임명으로 인해 대학이 혼란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으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와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차관은 교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면서, 학교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기존의 결정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전 차관의 이러한 행태는 비난의 대상이 되며,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 전 차관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주대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일화(逸話)에 기대어 반추(反芻)해 본 학장 사퇴의 변(辨)**

강명구(사회과학부 교수)

손전화가 없는 관계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딸 아이가 특별제작해 준 나의 수첩은 모든 정보와 약속이 손때 묻어가며 총집결하는 장소이다. 보직을 그만두니 수첩에 손 때 묻힐 일이 펍 줄어들 일정표를 적어 놓는 공간들이 꽤나 허엿다. 하루 종일 추적 추적 비 오던 지난 주말 오후에 간만에 수첩 대신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 읽지 못하던 배달된 잡지 한 권을 집어 들었다. 가슴 몽클한 감동적 실화(實話)를 그대로 옮겨 적어 그 일화에 “감히” 빗대어 학장직을 그만 두게 된 제 심사의 한 자락을 들추어 본다. 화합보다는 갈등이, 깔끔함보다는 어수선향이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학내 상황에서도 원고를 부탁한 <교수회>의 권유가 이 처럼 삶의 향기를 반추하는 계기가 된 것에 아이러니와 동시에 감사를 느낀다.

와서 울고불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도 딱 해서 고민하다가 무턱대고 원주역에 나가셨대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원주역에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원주가 작은 도시니까 장 선생님을 사람들이 대개 알잖아요. 이 노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주역 광장에 계속 앉아계시니까 왜냐고 더러 물어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이 사연을 말씀하시고 그게 소문이 다난 거예요.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만 계셨다고 해요. 뭐 다른 방법도 없죠. 그런데 일주일 되던 날 그 소매치기가 선생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일부 쓰고 일부 남았습니다. 이거라도 드리고 나중에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돈을 할머니한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 선생님이 역전에 나오셔서 소매치기를 불러 소주집으로 데려갔대요. 그러면서 “내가 자네 영업을 방해했지, 용서하게” 그러셨다고 해요. <녹색평론> 106호 2009년 5-6월 호, 35쪽. 김종철(강연)/이문재(대담) 녹취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중에서 발췌)

장일순 선생님에게는 재미있는 일화가 참 많아요. 저 같은 수양이 모자란 사람들은 그런 분을 마음에 늘 기억하며 산다는 게 큰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웃에 장사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한번 기차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아들 학교등록금 인가, 어쨌든 매우 중요한 돈을 잃어버리고 선생님한테

아주대학에 삶과 학문의 동지를 둔 지 벌써 18년째 이지만 그간 보직은 나와 대체로 무관한 업종이었습니다. “무보직의 큰 자유”를 일찌감치 눈치 채 개인적 선택법도 있으려니와 동시에 소문으로 미루어 지레 짐작되는 내 성향도 한 몫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일 년 여 몇 개의 보직을 동시에 맡아 놓았으니 “한 번 내리면 쏟아 붓는다.” (It never rains, but pours out)는 서양 속담이 남의 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작년 수첩을 보니 그야말로 깨알같이 일정표가 가득 찬 날들이 적지 않더군요. 따라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 시작한 김에 할 거면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나서 깨끗하고 홀가분하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에서 벗어나자. 뭐 그러저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 깨면 학교 생각, 회의 생각 등으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중간에 그만 둘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일을 해 보니 밖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 날 내가 이견(異見)을 드러냈던 여러 일들이 다 고만고만한 이유가 없지 않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한 동료교수로부터 이른바 ‘보직중후군’에 감염되고 있다는 장난기 섞인 발언을 듣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별일 없이 재미있게 살던” 보직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항상 작은 일하다가 큰 방향은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경계심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 젖다보면 밖에 보면 뻥한 이치인데도 안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견해에 두로 귀 기울이는 습성은 수양이 부족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스스로 정한 원칙과는 수미일관(首尾一貫)하려고는 애는 썼습니다. 제 스스로 정한 원칙이라 해보았자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이라면 적어도 어떤 선 밑으로는 내려가서는 안된다’ 라는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발상 혹은 상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세상과 자연 돌아가는 이치를 궁구(窮究)하여 밥 벌어 먹고 사는 곳이니 여타 일반 직장보다는 좀 품귀가 있어야하고 그래도 좀 더 도덕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무엇 무엇을 꼭 이루어 내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애당초 나의 생각이 지배하는 관할구역 밖에 있었기에 어찌 보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학 가치의 ‘미니멀리즘’ (minimalism)을 추구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나서서 돕지는 못하더라도 이웃이 어렵다고 찾아오면 어떡하든 좀 도우며 살아야지 하는 장 일순 선생님의 소박한 심사에 빗대면 과한 것일까요?

장선생님께 이웃집 할머니가 소매치기 당한 돈 찾는 것도와달라고 찾아 오셨듯 “별일 없이 재미있게 살던” 제 보직일상에 그냥 못 본체 하고 지나치기에는 과한 일이 동시에 두 건이 일어났습니다. 외양으로는 별개이지만 뿌리는 같았습니다. 한 건은 사회대 교수 한 분이 권력 핵심부 비서

관으로 가기 위해 휴직서를 제출한 것이었고 다른 한 건은 박 중구 전 차관의 ‘화려한’ 복귀문제였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중구 전 차관이 오래 전 사표를 내고 나간 자리에 다시 박 전 차관이 복귀하려 하였던 것입니다.<sup>1)</sup> 저는 총장께 장문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휴직허가가 부당함을 말씀드렸고 박 전 차관 건에 대하여는 특채가 문제있음을 개인적으로 밝혔습니다.<sup>2)</sup> 대학을 징검다리 삼아 권력기관으로 들고 나는 행태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는 공공선(公共善)을 위해서 뿐 아니라 대학의 품격을 위해서도 학장이 동료교수들을 대표하여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접근하여도 모자랄 일을 깃털 같은 형식 요건에 기대어 총장이나 재단의 당연한 권리라던가 혹은 교수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본부가 일을 못해서야 되겠냐는 등의 발언을 접할 때면 이것은 참으로 평생을 업(業)으로 하여 진력하는 동료 교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법률이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칙은 대학사회 기본 가치라는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일 못하지 마세요. 일 하세요. 그리고 책임지세요. 다만 발언하기 전에 포퓰리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시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나갔다가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필요에 따라 다시 ‘화려하게’ 마음대로 돌아오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왜 포퓰리즘이고 재단과 본부의 어떤 권리는 침해하는 것인지 아직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재단과 본부가 허락하면 몇 몇 사람들에게는 대학이 뭐 지나치다 들리는 세속적 욕망의 배설소(排泄所) 역할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대학이 무슨 수도원도 아니고 철옹성의 상아탑도 아닌 바에야 연구한 것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그러니 너무 오고 가는 것에 민감하지 말라, 오히려 요즘은 그게 대세다 그리고 총장 말씀대로 아주대는 그런 사람 필요하다 라는 반문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아무나 또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달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본질적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될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염불보다 제삿밥에 신경 쓰면 염불도 안 되고 제삿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염불 열심히 외우면 제삿밥은 대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래야 되구요. 나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혹은, 보고 싶을 때만 보는) 이런 경박함 때문에 아주대가 그렇게 바라는 Top 10에 못 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백 보 양보하여 로비스트의 필요성과 사회에 대한 봉사 필요성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합시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꼭 막힌 벽창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에 적을 두고 학문적이고 세속

1) 물론 교수회 서한에도 밝혔듯이 우여곡절 끝에 교육대학원에 적은 두고 근무는 신설된 교무부총장실에서 하고 낙찰을 보았습니다.  
 2) 휴직 건에 관하여는 이미 시사주간지 <시사 인> 2009년 3월 9일 자에 저간의 사정이 자세히 보도 되었고 박 전 차관 건에 대하여는 김철환, 강명구의 보직 사임 성명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적인 삶의 물질적 토대를 이곳에서 추구한다면 적어도 몸통과 꼬리가 뒤바뀌어서는 아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대학가치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일 피치 못하게 본말(本末)을 전도(顛倒)시켜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학이라는 조직이 지켜야 할 게임규칙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듯, 아니면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듯 견강부회(牽強附會) 혹은 짜맞추기 식으로 형식요건만 갖추려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학 밖으로 나가서 봉사하겠다던 기꺼이 환송해 드립니다. 대학 안으로 들어와 봉사하겠다 하여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자신이 속할 곳의 게임 규칙 중 모르는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필이면 왜 제가 그런 문지기 임무를 맡아야만 하는 학장직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편으로는 야속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하면 할머니가 장선생님 찾아뵈신 것이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팔자소관이지요. 아니면 제 눈에 눈물 맺히게 한 전직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그 사람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명이라면 운명이겠지요. 제가 아주 대학교 교수이고 그리고 학장이래서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함부로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대로 들고 나더군요. 그래서 그만 두기로 하였습니다. 장선생님이 뭐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원주역 앞에 나가 앉아계셨듯이 저도 뭐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만 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전략이고 숨겨진 의도고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기 전에 좀 상의라도 하지 하는 동료교수들의 말씀 헤아리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 이 지면을 통하여 밝힙니다. 이번 일이 대학의 기본가치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결된다면 진심으로 제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업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장선생님이 진심이셨듯이 저도 진심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첨부합니다. 김종철 선생이 위에서 인용한 강연 중 이런 말 하였습니다. 무엇이 좋은 삶이냐 하면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빗대어 말씀드리지요.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하면 돈 많이 끌어오는 대학도 아니고 고관대작 많이 배출하는 대학도 아니고, 중앙일보 평가에 높은 등수 올리는 대학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Top 10 들고, 고관대작 배출하고 신문에 등수 올라갑니다. 만약에 안 되면요? 운명이지요 뭐. 허나 십중팔구 된다고 생각하는 ‘희망이라는 편견’ 을 가지면 됩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저는 이번 일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謹弔 2009. 5. 27

## 오만(傲慢), 무력(無力), 그리고 뻔뻔함(沒廉恥)

김철환(사회과학부 교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리하지 않으면 제도에서 제대로 잘 굴러간다. 제대로 굴러가면 앞으로 나아간다. 바로 발전이고 진화이다. 국가가 그러하고, 기업이 그러하고 대학도 그러하다. 상식을 벗어난 독선과 압제로 국민을 철권으로 다스리는 정권의 말라고 비극으로 끝남(날 것임)은 과거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상식이하로 분수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차임으로 파탄에 이르는 회사와 국가가 어디 하나 둘인가? 아마도 개인의 몸도 그러하리라. 상식을 벗어난 폭음과 흡연, 스트레스가 몸에 무리를 가져오고 암을 발생시켜, 급기야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경우를.

우리 아주대학교에서도 상식의 붕괴로 인한 혼란이 발생했다. 박종구 교과부 전차관의 정년보장교수 특별임용과 교무부총장 보직임명이 바로 그 것이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러한 상식 이하로의 일탈은 “뭐, 이런 학교가 다 있어” 라는 젊은 교수의 발언으로 요약된다. “뭐가 잘못이냐” 는 이사장, 총장, 그리고 당사자의 항변을 전해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대학교의 현재 수준이 이정도인가 하는 참담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혹자는 학교에 대한 만정이 떨어진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어느 정도 상식선을 지키

기만해도 세상만사는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박종구 전차관의 아주대 낙하산 인사로 발생한 사태의 본질은 재단이사장의 오만함, 총장의 무력함, 그리고 박종구 전차관의 뻔뻔함이 아우러진 몰상식의 종합수치(羞恥) 세트이다.

재단에겐 재단으로서 해야 할 큰 역할이 있다. 재단은 대학을 설립하면서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이러한 설립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큰 틀을 제시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이다. 재단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총장을 선임하고, 선출된 총장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 과정에서 총장의 리더십이나 자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단은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사장과 총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합리적인 정책과 비전, 그리고 리더십을 행사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신뢰의 시스템은 망가지게 마련이다. 신뢰의 상실은 조직을 파멸로 몰아넣는다. 상식을 벗어난 이번 박종구 전차

관 낙하산 인사로 인해 이제 이사장과 총장은 교내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윤원석 이사장은 취임 이후 대학의 의사결정구조를 모조리 수직적으로 편제하고 상식 이하의 교원 승진인사 참여로부터 지엽적인 문제까지 시시콜콜히 참견하는 등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왔다. 공익법인인 대학을 영리추구의 회사로 착각한 것이다. 이사장은 이러한 간섭을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철학의 빈곤함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러한 이사장의 행태가 학교와 기업의 차이를 모르는 소치라 여겼기에 대학을 이해하고 관용으로 대학을 운용하는 새로운 이사장을 모시기를 소망해 왔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사장으로 네 번째 중임된 이후, 이사장의 대학에 대한 철학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철학의 빈곤을 넘어선 상식의 부재까지도 엿보인다. 상식의 부재에 독선과 오만이 결합되고 있다. 박종구 전차관의 낙하산 정년보장교수 임용 및 부총장 임명을 사회의 우려 속에서 감행한 이사장의 행위는 대학이 무엇이지 모르는 무지의 백미를 넘어선 독선과 오만함을 내포하고 있다. “대학은 내 것”이라는 독선과 “내 것 내 마음대로 한다”는 오만의 극치가 다시금 아주대학교에 미칠 파괴력에 대해 우리 구성원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서문호 총장은 아주대학교 개교 이후 처음으로 선출된 아주대학교 교수 출신의 총장이다. 첫 번째 교수 출신의 총장으로서 대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교수들의 충정에서 모두들 그 동안 총장을 열심히 돕고 후원해 왔었다.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공간의 부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인프라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은 교수들이 헌신적으로 논문 한 편 더 쓰기 위해, 한 시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 왔었다. 좀 더 훌륭한 교수를 뽑기 위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며 좋은 교수를 선발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박종구 전차관의 정년보장교수 임용을 본 많은 교수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총장에 대한 관찰력과 감식안이 보잘 것 없었음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

특권과 반칙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한다. 아주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했고 정부로 가기 전 1년이나 기획처장을 지낸 박종구 전차관은 아주대학교의 정년보장교수로 특채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나거나 사계의 권위자”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특권과 반칙에 의한 정년보장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대학교수임용의 공정성을 권장 감독하는 정부부처인 교과부의 차관까지 지낸 박종구 전차관은 누구보다도 정년보장교수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할 것이다. 설령 “본인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교수가 되었다”면 이를 사양할 엄치와 양식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자금이 공장하계 배분되어야 할 당위성은 오랫동안 과거 처 차관급으로 일해 온 박종구 전차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일 것이다. 설령 허접스러운 대학에서는 로비스트로 전직관료를 활용하려는 구시대적 작태가 아직도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주대학교에서 정년보장교수로 임용되기도 전에 발령한 교무부총장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소위 로비스트로 기대되고 있다면 박종구 전차관은 의당 그 자리를 내쳐야 할 것이다. 고작 한 끼 밥을 위해 대학의 본질인 자율과 독립을 반납하는 퇴화행위에 죽비를 날리면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 “아주대학교가 모교” 같으므로 아주대학교에 오고 싶다는 충정에 시작된 길이였을 지라도 이 길은 이미 갈 길이 아님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세 부처에서 차관을 지낸 내가 아주대학교 부총장도 못하고 쫓겨날 수는 없다”는 불명예스러움을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식에 벗어나 만들어진 자리에 무리하게 집착하는 것은 똥 덩어리 위에 시치미 떼고 앉아 있는 형국이 된다. 이것은 뻔뻔함이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데 본인은 명예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은 전공에 의해 교수를 선발한다. 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의 전공은 오랜 기간에 걸친 학문 활동의 결과이다. 경제부처에 몇 년 근무했다고 경제학자가 아니다. 대사 지냈다고 외교학을 가르칠 수 없다. 비전공자들이 전공자의 영역을 침범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많은 시간적 경제적 노력을 쏟아 부었던 전공자들이기도 하지만 더 큰 피해는 비전공자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인 것이다. 대학(원)의 교육이 전공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강의할 수 있는 대학은 아무리 많은 돈을 따와도 3류 대학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빈곤의 오만, 자율상실의 무능, 몰염치의 뻔뻔함이 결합되어 발생한 혼란은 우리 아주대학교를 갈등으로 몰아넣는다. 혼란과 갈등이 무리 없이 조용하게 수습되지 못하면 결국은 파국으로 귀착된다. 교내에 비등한 여론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의 그늘을 찾는 외톨박이나 사회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도덕적 외골수”로 비하하지 말고, 부디 이사장, 총장, 그리고 박종구 전차관이 결자해지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교수회 대의원 명단》

◇ 의장 : 이일영(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5281

단과대학	성명	원소속	연구실
공과대학	주동표	화공신소재	2386
	유연우	생명분자	2449
	박 범	산업정보시스템	2426
정보통신 대학	류기열	정보 및 컴퓨터공학	2636
	조중열	전자공학	2380
	이주엽	미디어학	1838
자연과학 대학	하영화	수학	2563
	민철기	생명과학	2621
경영대학	박호환	경영학	2723
	황의록	경영학	2713
인문대학	문승재	영어영문학	2827
	김 현	국어국문학	2813

단과대학	성명	원소속	연구실
사회과학대학	안재홍	정치외교학	2791
	김영진	심리학	2768
법과대학*	소병천	법학	2767
	이준섭	법학	3785
의과대학	신승수	호흡기내과학	5122
	신호준	미생물학	5076
	안재홍	안과학	5255
	이재호	생화학	5053
	왕희정	외과학	5204
	정영기	정신과학	5182
간호대학	송미숙	간호학	7013
단과대학 미소속	최기련	에너지시스템학부	2697

\* 법과대학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대의원으로 소속변경 작업중임.

**정도를 걷는 **아주**, 상식이 통하는 **대학****

아주대학교 교수회

**재단 이사장은 대학을 농단하는 형태를 중지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

**박종구 전 차관은 아주대학을 떠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